



한국성서대학교 신임총장 **최정권** 박사



# KOKKOS 12

DEC 2023 VOL. 260

✠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코코스는 '한말의 말'을 의미 • 발행인 강우정 • 편집주간 이상봉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TEL.02-950-5401 • www.bible.ac.kr

지난 20일 이사회는 본교 제 8대 총장으로 최정권 목사를 선임하였다. 최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대학을 세우신 단 한 가지 뜻은 한반도의 복음화를 이룰 일꾼 양성이다. 시류와 타협하지 않고 이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선임 소감을 말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면에서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굳은 결기가 느껴졌다. [관련기사 2면]

# 제 8 대 총장 최정권 목사

## 법인, 이사회 만장일치 선임

학교법인 한국복음주의학원 이사회는 20 일 본교 제 8 대 총장으로 최정권 목사를 선임하였다.

최정권 목사는 본교 27 회 (1977 년 입학, 1983 년 졸업) 동문이며, 총신대학교 (M.Div.) 와 리버티대학 (신학석사 Th.M.) 을 거쳐 2017 년에 본교 신대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필라델피아 첼튼햄장로교회에서 2001 년 부터 17 년간 담임목사로 일했으며 2017 년 7 월부터 오늘까지 성서대학교교회 제 4 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다.

2010 년부터 4 년간 미국 KOSTA 강사, 2018 년부터 기독교방송 CBS-TV 의 성경 공부 프로그램인 '성서학당' (3 년 8 개월 출연) 의 강사로 말씀을 전했다.

최정권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 대학을 세우신 단 한 가지 뜻은 한반도의 복음화를 이룰 일꾼인 복음 전도자를 양육하라는 것이다. 시류와 타협하지 않고 이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겠다. 기도해 주기 바란다" 고 선임 소감을 말했다. 임기는 2024 년 3 월 ~2028 년 2 월까지이다.

한편, 이사회는 현 강우정 총장을 제 13 대 이사장으로 선임하였다.



### 총장 인터뷰

##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도 흠모하는' 복음전도자 양성

### "성서인의 강한 근성과 저력은 우리의 자산"

### 어려운 상황 - 새로운 것 없다. 믿음과 도전이다

제 8 대 총장으로 선임된 최정권 목사와 인터뷰를 가졌다. 외유내강 (外柔內剛)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면에는 한 치의 물러섬도 없는 굳은 결기가 느껴졌다.

#### Q 총장 선임에 대한 소감은 ?

A 중책에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감당할 은혜도 함께 주실 것이라 믿는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한 걸음씩 걸어갈 것이다.

#### Q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와 여러 외적 상황으로 어려운데 ?

A 대학가에 경고등이 켜진 건 새로운 뉴스가 아니다. 먼저 구성원 전체의 자신감과 믿음이 필요하다. 현실은 인정하되 두려워 말고 함께 전진하여야 한다. 믿음에는 도전이 뒤따른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는 예수님의 도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대학은 숭한 고난을 헤치며 여기까지 왔다. 성서인의 강한 근성과 저력은 우리의 자산이다.

#### Q 우리 대학 발전에 대한 비전은 ?

A 우리 대학의 비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도 흠모하는' 복음전도자의 양성이라고 본다. 우리 대학의 인재상이 '말씀에

거하는 성서인, 복음을 위한 전문인, 화합과 관용의 사회인' 인 데 이러한 인재를 기르는 것이 대학의 발전이고 목표이다. 우리는 최고 수준의 전문 실력을 갖춘 성서인을 배출해야 한다.

#### Q 학교 유지, 발전을 위한 재정 확보에 대한 구상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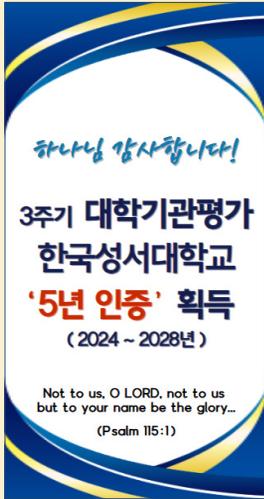
A 아주 중요한 지적이다. 그동안 방송일을 하면서 방송사들이 외부 후원자 모집 과정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리 대학을 후원할 가치가 있는 학교로 홍보를 펼치겠다. 후원자들에게 자신의 후원이 당대는 물론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또 동문들, 일반 교회들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후원자 간의 만남도 넓혀 주의 나라 건설에 동참하도록 전심을 다하겠다.

#### Q 어떤 총장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

A 오랜 시간 목회와 설교자로 살아온 제가 학교 공동체에 따뜻한 함을 줄 수 있는 총장이었으면 하는 소원이 있다.

# 2023 년 ( 하반기 ) 대학기관평가 ' 인증 ' 확정

## 5 개 영역 30 개 준거 All Pass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다만 당신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소서」. (시 115:1, 공동)

우리 대학교가 27 일 한국대학평가원으로 부터 2023 년 ( 하반기 ) 대학기관평가 결과 5 개 영역 30 개 준거 모두 Pass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평가원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12 월 27 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는데 우리 대학은 이의가 없으므로 '인증' 이 확정된 셈이다. '인증' 기간은 2024~2028 년까지 5 년이다.

강우정 총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

린다. 그동안 평가 준비에 최선을 다해준 성서공동체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고 말했다. 학교는 29 일 학생식당에서 학우들을 비롯한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따끈한 갈비탕을 대접하며 All Pass 인증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대학평가원은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인재상에 부합된 핵심역량 함양, 교과 비교과의 운영, 학습성과관리 노력과 교육과정에 대한 성과분석의 환류와 개선실적이 명확했다" 며 우리 대학의 교육목표와 인재상 (평가준거 1.1) 에 대해 극찬하고 있다.

### 유정선 ( 성서 ) 교수 정년 퇴임식

“우리가 배출한 신학자 충성을 다 쏟아 주었다”



▲ 정년퇴임식을 가진 유정선 교수 ( 왼쪽 ) 가 강우정 총장과 함께.

유정선 ( 성서 ) 교수 정년 퇴임예배가 23 일 로고스홀에서 열렸다. 예배에 유 교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 ( 요일 3:18~24 ) 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다. 주님 안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행하는 사랑으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 " 고 설교하였다.

강우정 총장은 " 유정선 교수는 우리 대학이 배출한 몇 안되는 신학자이며, 가장 기본적인 행정적으로 시작하여 일립교육부장이라는 중요한 보직까지 맡아 성공적으로 해 낸 귀한 일꾼이었다 " 고 회상하였다. " 은퇴는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한번 우리 대학 강단에 설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 " 고 덧붙였다.

유정선 교수는 교학팀장과 성서학과장, 교목실장 및 일립교육부장을 역임하였으며 「보혜사 성령」 등 14 편의 저서와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 총동문회장

### 윤두태 ( 25 회, 가성교회 ) 목사

“모교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총동문회로”



▲ 전임 회장 이성화 ( 왼쪽 ) 목사가 윤두태 총동문회장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다.

본교 총동문회장에 윤두태 ( 25 회, 가성교회 ) 목사가 만장일치로 추대되었다. 지난 21 일 밀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는 상임회장 김동관 ( 29 회, 수원안디옥교회 ), 운영회장 김남웅 ( 36 회, 일산우리교회 ) 목사를 선임하였다.

윤두태 목사는 소감에서 " 중책으로 마음이 무겁지만 모교를 돕는 은혜의 짐을 짊어져 감사하다. 우리 대학은 기독교 중심 대학으로 우뚝 자리매김하였다. 총장으로 선임된 최정권 목사님과 모교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총동문회로 거듭나겠다 " 고 밝혔다.

총동문회 신임 임원단은 다음과 같다.

- ◆ 대표회장 : 윤두태 목사 ( 25 회, 가성교회 )
- ◆ 상임회장 : 김동관 목사 ( 29 회, 수원안디옥교회 )
- ◆ 운영회장 : 김남웅 목사 ( 36 회, 일산우리교회 )
- ◆ 상임총무 : 박윤복 목사 ( 38 회, 제자교회 ) ◆ 실무총무 : 전영호 목사 ( 54 회, 대외협력팀 )
- ◆ 서기 : 윤창규 목사 ( 30 회 ) ◆ 부서기 : 김종환 목사 ( 35 회, 노곡제일교회 )
- ◆ 회계 : 이병철 목사 ( 37 회, 주향교회 ) ◆ 부회계 : 최영학 목사 ( 36 회, 세계로교회 )

## 회장 채경훈, 부회장 조효진 당선

제 40 대 총학생회장 선거



▲ 40 대 총학생회 회장 채경훈, 부회장 조효진

한국성서대학교 제 40 대 총학 회장 선거에서 회장에 채경훈 (사복 3), 부회장에 조효진 (영보 3) 학우가 당선되었다.

총 유권자 887 명, 투표 참여는 503 명 (투표율 56.70%) 이었고 이 가운데 찬성 445 명 (88.46%), 반대 47 명 (9.34%) 및 무효 11 명 (2.18%) 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선거는 단일후보였기에 찬반 투표로 진행 되었다.

40 대 총학생회는 다음 총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학우다움, 학교다움으로 학우와 학교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다. 채경훈 당선자는 "부족하지만 영광스러운 자리를 섬기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학우들의 믿음에 보답하고 감사와 사랑으로 섬기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 「전도의 해」 2 학기 불신가족 10 명 주님 영접

강규성 교목실장

“전도는 끝난 것이 아니다 ...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까지 계속”

올해 「전도의 해」 의 2 학기 목표는 불신가족 전도였다. 22 명의 학우들이 가족의 구원을 염원하며 2 학기 동안 이들에게 전도하기로 결심과 함께 손들고 나섰다. 22 명의 학우들이 복음 전도의 대상이라고 지목한 가족은 남편, 자녀, 부모, 조부모 등 모두 31 명이었다.

11 월 24 일 현재 31 명 중 22 명이 전도를 받았는데 그중 10 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 12 명은 거부 혹은 고려 중이다.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가족은 9 명이었다.

학기 말이라 「전도의 해」 캠페인을 접어야 하는 교목실 교목들과 해당 학우들은 불신 가족들에 대해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규성 교목실장은 "전도는 끝난 것이 아니다. 믿는 날까지 아니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가족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가족구원 캠페인 기간 동안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기도로 함께 하였다. 매일 기도 쪽지에 학우의 이름과 그의 아빠, 남편 등 호칭을 부르며 기도하였고 매 수요일 채플 후 70~80 명의 구성원이 천마홀에 모여 합심 기도를 드렸다.

22 명의 학우들은 복음제시를 위한 특별 훈련도 받았다. 복음전도의 '기술자' 라는 호칭을 붙여 가며 가족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기술, 복음을 요령있게 전하는 기술 등의 워크숍도 진행하였다.

## 2023 년 2 학기 4 학년 주관 예배 그리스도 안에 속한 신앙인의 거듭남을 보였다



▲ 조민영 학우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2023 학년도 2 학기 4 학년 주관 예배가 11 월 6 일 (월) 부터 11 월 17 일 (금) 까지 2 주간 진행되었다. 4 학년 학우들이 사회와 말씀 및 간증을 전하며 지난 4 년간 배움을 통해 향상된 신앙과 인격적 성숙을 진솔하게 전했다.

조민영 학우가 '만약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요 1:1~18) 설교를 통해 "말씀(로고스)에 따라 세상 만물이 지어졌고 우리가 태어났다.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과 딸로 태어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로고스의 부정은 곧 나의 부정이고 말씀과의 관계가 깨지면 이는 나를 파괴하는 길로 이어진다.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다해 교제해 나갈 때 삶의 진정한 의미와 자유를 얻게 해줄 것" 이라고 말했다.

임종우 학우가 자신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으나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고 3 시절, 기흥을 앓으며 2 달간 병상 생활은 힘들었다. 나는 "왜 하필 지금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런데 우리 대학 선배 학생 간호사의 따뜻한 돌봄 덕분에 치유되었고 성서대 진학까지 이어졌다. 그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우리 모두의 관계가 하나님 안에 속한 필연이길 바란다며 간증해 주었다.

## 경성교회 갈멜관 증축기금 1 천만 원 박종걸 목사 “성서대와는 동반자 관계 그 이상”



▲ 경성교회 박종걸 (왼쪽) 목사가 강우정 총장에게 갈멜관 증축기금 1 천만 원을 후원하였다.

경성교회 (담임 박종걸 목사) 가 지난 19 일을 ' 성서대학 주일 ' 예배로 드리고 우리 대학교 갈멜관 증축기금 1 천만 , 운영기금 5 백만 원을 후원해 주었다 . 박종걸 목사는 " 우리 교회와 한국성서대학교는 지난 25 년간 말씀 그대로를 함께 실천해 온 동반자 관계 그 이상이다 . 귀한 물질이 복음전도자 양성에 소중히 사용되기를 희망 한다 " 며 강우정 총장에게 전했다 .

이에 앞서 강우정 총장이 " 착행 "( 마 5:14~16) 으로 말씀을 전하였다 . 우리 대학은 한반도 복음화를 위해 복음전도자 양성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재학생들은 4 년 순환 주기로 말씀 , 기도 , 전도 , 섬김을 다하고 있다며 학내 복음화 , 외연 확장 , 갈멜관 증축을 통해 사명을 이뤄가는 성서공동체 될 것임을 다짐하였다 .

강규성 부총장이 특별 찬양 ' 사랑하는 자들아 ' 로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 최수일 , 장순복 씨 발전기금 1 억 원 쾌척 '하나님이 움직이셨다' 김조자 교수 큰 역할

최수일 , 장순복 후원자가 일립관 기숙사의 시설 , 가구 등 교체에 사용해 달라며 거금 1 억 원 ( 각 5 천만 원 ) 을 쾌척해 주었다 . 최수일 , 장순복 후원자는 " 우리 마음을 움직여 준 분은 하나님 " 이라며 겸손함을 드러냈다 .

이번 후원에는 김조자 ( 간호 ) 초빙교수 노력이 결정적이었다 . 김 교수는 평소에도 주변 지인들에게 ' 성서대학이 신앙 정체성 교수와 복음전도자 양성의 외길을 걷는 올곧은 대학이다 ' 라며 후원 요청을 지속해 왔다 . 지난 2019 년 1 월에도 故 강순숙 씨로부터 1 억 원의 후원 결실을 이뤄내기도 하였다 .

## 박선희 외래교수 발전기금 1 천만 원 성서대에서 '내면까지 힐링되는 축복 ' 누려

박선희 외래교수가 학교발전기금 1 천만 원을 후원하였다 . 박 교수는 본교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이 통과되었다며 "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 학위 과정에 신앙과 학문의 성숙함은 물론 자신의 힘든 내면까지 힐링되는 축복을 경험케 해주었다 . " 며 감사를 전했다 .

박 교수는 노원역 근처에서 남편 ( 원장 이태일 ) 과 「선한마음치과」 를 운영하고 있다 .

## 조형준 동문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 사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인 권익향상 기여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조형준 동문

조형준 동문 ( 사복 , 60 회 ) 이 27 일 ( 사 )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주관한 「2023 장애인먼저실천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장애인먼저실천상」 은 장애 인식 개선과 권익향상에 노력한 개인과 단체를 표창한다 .

조 동문의 공적은 2014 년 장애 · 비장애를 넘어 사회복지에 대한 사람들의 소식 ' 사회복지 100 인의 인터뷰 ' 를 진행하였다 . 또한 지역사회 내 소규모 복지시설과 약자의 사회적 관심 및 인식개선을 위한 ' 조 선생과 함께하는 기부 걷기 프로젝트 ' 등 사회적 가치 확산 활동을 인정받았다 .

조형준 동문은 "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 꿈을 꾸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 많은 이들과 연대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 하고 싶다 " 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 ‘노원어르신행복대학 29명 수료’

오승록 구청장  
“자랑스럽고 멋진 청년대학생” 축하



▲ 노원어르신행복대학 수료식을 마치고.

‘노원어르신행복대학’ 수료식이 24일 오전 갈매관 305호에서 개최되었다. 행복대학 과정을 이수한 29명의 수료자에게 오승록 구청장이 수료증을 전하며 축하해 주었다. 행복대학은 우리 대학교와 노원구청이 공동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6개월 전 개교 때 400명으로 시작하였는데 대부분 중도 탈락하고 이날 29명만 완주의 기쁨을 누렸다.

‘노원어르신행복대학’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집중, 심화(10개 단과반) 과정을 학습한다. 디지털 정보화, 외국어 활용, 나도 유튜브 및 토탈 공예 등이 운영되며 수료료는 무료다. 내년부터는 인문학, 역사, 철학 등으로 강좌가 확대될 예정이다. 수강 관련 문의 평생교육원 02-950-5558이다.

강우정 총장은 인사말에서 “고령에도 배움의 열정을 가지고 수료하게 됨을 축하한다”고 말하고 “우리 대학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전하는 대학이다. 언제라도 방문하여 달라”고 말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수료생 여러분은 자랑스럽고 멋진 청년대학생이라며 100세 시대에 더 많은 만학도가 학습의 기쁨에 도전하기 바란다”고 축하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원은 노인장들의 멋진 도전에 힘찬 박수와 축하를 전하였다.

## 장애학생 – 총장 간담회

“남을 돕는 학우가 되어야 할 것” 당부



▲ 장애학생 간담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나란히 하였다.

2023학년도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총장 주관 간담회가 29일, 밀알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김성경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사회로 3개 센터(진로심리상담·교수학습·취창업지원)와 도서관의 장애학생지원 프로그램이 소개되었고, 학우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 등을 나누었다.

강우정 총장은 권면을 통해 “하나님 형상을 닮은 여러분은 우리 대학의 보배이다. 특히 학교에서 비장애 학우들의 인격과 신앙, 사회성을 성숙시켜 줄 귀한 존재라며 어렵지만 남을 돕는 학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전서연(사복 1) 학우가 교수학습의 NSLB 러닝메이트에서 학업은 물론 친구들과 친밀감이 향상되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학우들은 장애학생 휴게실의 청결 유지와 일립관 현관문의 고정장치 필요성도 건의하였다.

진로심리상담센터 신금주 차장은 장애학생 진로 탐색 프로그램인 라온 삶을 안내하고 참여를 요청하였다. 윤혜진 교수학습센터장은 어려운 PPT 활용법 등을 주기적으로 개설하고 있으며 안내 공지 등에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지에 취창업 센터장은 성공적 취업을 위해 맞춤형 소통을 당부하였다.

장애학생 6명, 교육동행인 6명과 강규성 부총장, 최은희 학사부총장, 권경만 전략기획실장 등 주요 보직자가 함께 하였다.

## 나노디그리 교육과정에 192명 참여

'복음을 위한 전문인'을 지향하는  
학우들의 열정에 큰 기대

두 번째 학기에 들어선 우리 대학의 나노디그리 교육 과정이 착실하게 뿌리 내리고 있다. 23-2 학기 과정에 70 명이 승인되었고 1 학기 122 명과 합하여 모두 192 명의 학우가 도전하고 있다.

재학생의 약 20% 가 이 같은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복음을 위한 전문인'을 지향하는 우리 대학의 인재상에 걸 맞는 학우들의 열정과 노력으로 간주되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우리 대학에서 개설된 나노디그리 교육과정은 △주일학교전문사역자 과정 (성서학과 주관 김현광 교수 담당) △영유아디지털리터러시 과정 (영유아보육학과 주관, 장현진 교수 담당) △기계학습실무전문가 과정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주관, 임지영 교수 담당) △근거기반간호연구자 과정 (간호학과 주관, 고미숙 교수 담당) 이다.

대학에서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해 구체적 역량개발 교육과정을 집중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작은 학위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에 맞춘 다양한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 하겠다는 뜻이 있다.

과정별 등록 인원과 이수교육과정, 이수학점은 다음 표와 같다.

나노디그리 과정명	주관 학과	이수 교과목명	학점	등록인원
주일학교 전문 사역자 과정	성서학과	상담의이론과실제/ 주일학교설교/교회학교운영	9	23
영유아 디지털 리터러시 과정	영유아보육학과	교육방법및교육공학/ 멀티미디어활용교수법/ 영유아교수방법론	8	25
기계학습 실무 전문가 과정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머신러닝프로그래밍/ 이미지딥러닝/빅데이터기술	9	12
근거기반 간호연구자 과정	간호학과	기초통계학/간호학연구/ 근거기반간호/ 논문작성세미나	6	132
계				192

## 간호학과의 진치 제 12 회 간호학술제

연구논문 8 편  
보건교육 포스터 15 편

간호학과가 주최하는 '제 12 회 간호학술제'가 16 일 오후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1 부 간호리더쉽 특강에서 오가실 (前 몽골 국제울란바트로대학 간호대학 학장) 교수가 '왜 간호인가'를 주제로 인간 생명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신앙에 기초한 헌신적인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 부 논문 발표는 안은서 학생회장 사회로 3 학년 54 명의 학우가 조별로 8 편을 발표하였다. 이에원 학우팀의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논문이 최우수 연구논문에 뽑혔다. '간호대학생의 영성, 좋은 죽음 인식...' 과 '간호대학생의 일상적 창의성, 셀프리더쉽...' 2 편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2 학년이 참여한 보건교육포스터는 최우수에 '마약 중독 예방 교육' (김태린 외 3 명) 이 선정되었으며 '노인 수면 건강 교육' 등 총 6 편이 우수작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앞서 강우정 총장의 격려사와 김조자 초빙교수의 논문 총평이 진행되었다.

간호학술제 최우수 논문과 보건교육 포스터는 아래와 같다.

- 최우수 논문: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지각된 스트레스, 회복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_ 지도교수 고미숙
  - ▲ 이에원 (발표) ▲ 김지윤 ▲ 김현철 ▲ 박재현 ▲ 윤다연 ▲ 조우준 ▲ 조윤아
- 최우수 보건교육 포스터: '마약 중독 예방 교육'
  - ▲ 김태린 ▲ 김은민 ▲ 이세은 ▲ 조영서 a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 「평가준거 1.1」 평가의견 비 기독교인이 쓴 우리대학의 정체성

대학평가원은 우리 대학이 2023년 (하반기) 대학기관평가 결과 '인증'에 해당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습니다. 이 통보를 받자마자 시편 115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겼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다만 당신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소서』 (시 115:1)

이번 '인증'이 '인증' 자체보다 더욱 값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가준거 1.1」의 평가의견 때문입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이념, 교육목적, 교육목표가 체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 교육목표가 명확하다. 교육목표는 성서적 세계관을 갖춘 성서인 양성
- 양성하려는 인재상이 분명하다. “말씀의 성서인, 복음을 위한 전문인 ....”
- 인재상에 부합하는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성서적 세계관 등 6개 핵심역량
- 핵심역량을 함양할 교육과정 (교과 및 비교과)이 잘 연계 되어 있다.
- 이 교육과정을 관리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 개선해 가는 환류 실적이 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성서 (말씀) 라는 단어가 6번, 희생적 봉사가 2번, 통합, 화합, 관용 등 성서적 용어가 가득합니다. 우리 대학이 이런 대학이라는 평가입니다. 고백하면 우리는 그동안 성서적 언어와 논리로 우리 대학을 표현하기를 두려워 하였습니다. 일반대학 평가자들에게 설득력이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여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중장기발전 계획에 '복음전도자'라는 다섯 글자를 넣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평가에 임하는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용기 있게 '복음전도자'로서 우리를 잘 드러낸 것입니다. 결과는 위의 평가의견입니다. 아이로니컬 하게도 이 평가의견을 쓴 평가위원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를 사용하여 우리 대학의 정체를 밝힌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날을 고대하였습니다. 큰 짐을 내려 놓는 기쁨입니다. 한국성서대학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한국성서대학입니다.



직원 컬럼  
곽경미 직원(사무관리팀)

## 명상과 함께하는 삶이란..

저는 7살, 6살, 3살의 삼 형제 엄마입니다.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며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하고 어떻게 키워야 할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유튜브나 육아 관련 서적을 찾다가 '정답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언젠간 떠날 귀한 손님이니 온 맘으로 접대해야 된다'는 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일 뿐. 하루도 조용한 날 없이 소리를 뿅뿅 지르는 장군 엄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에 명상이 도움 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이를 재우기 위해 옆에 누워 저만의 명상을 해왔습니다.

깜깜한 밤 잔잔한 파도가 치는 바다에 작은 배를 띄웁니다. 그 배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잔잔한 파도에 몸을 맡기자 바다 냄새와 파도 소리를 듣습니다. 잠시 후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이 반짝입니다. 그리고 멀리 지평선 위로 크고 둥근 밝은 달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둥근 달은 하늘 높이 올라 깜깜한 바다에 한 줄기 밝은 길을 만들고 저는 파도에 이끌려 달빛의 길 한가운데에 도착하게 됩니다. 달빛이 포근히 감싸 주었고 그 속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안정되면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 예배를 통해 명상 속의 달은 곧 하나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의 끝에 하나님이 달빛의 모습으로 저에게 수고 많았다며 토닥토닥해 주시려고 명상을 알려 주셨구나?' 이렇게 말이지요.

여러분도 복잡한 생각과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잠시 내려 놓고 명상을 해 보세요. 명상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깨닫는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교수 컬럼**  
김웅기 교수(성서학과)

## 성서 암송

시편 1 편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알려준다. 밤낮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하는 것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하게 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둘째, 그는 말씀이 그 마음에 있기에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 피할 자리는 피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향해 가게 된다. 셋째,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알 아 그것을 잘 감당하게 된다.

사람들은 형통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일이 모두 잘 되고, 자신이 원하는 일을 모두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거의 예외 없이 타락하게 마련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일에서 형통을 경험하게 된다.

연구년 기간에 설립자 강태국 박사님의 제자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백발의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스승의 교수법 가운데 하나는 성서 암송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설립자께서는 도대체 그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실 수 있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서 암송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된 것이다.

시편 1 편은, 그리고 설립자 강태국 박사님의 삶은 우리에게 말한다. 어떤 사람의 행복 수준은 그가 밤낮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학생 컬럼**  
인성은(성서 4)

## 나를 꽃 피우기 위해

시간은 멈추지 않으며 곧 새로운 해와 마주한다. 2023년 11월 22일 10시 22분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시간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모두도 '현재' 시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고 있다.

이러한 쳇바퀴 같은 시간 위에 우리는 나이라는 것을 차곡차곡 쌓아 둔다. 이 법칙을 가장 감각적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 바로 '부모님'이다. 누구나 처음은 아무것도 모르는 푸릇한 유년 시절을 지나왔다. 우리의 부모님도 그런 시절이 있었노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님은 자신의 아이와 같은 모습을 점차 잊게 된다.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마음은 사그라지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행복은 피어난다. 반대로 우리가 아파하면 슬픔과 고통에 휩싸인다.

나도 뒤를 돌아보니 아직 10대나 20대 초반이었을 것 같은 마음과 느낌이 없어졌다. 정확히 말하면 현실이 그걸 부정한다. 경쟁과 공존하는 사회에서 면접장에 들어간 순간 답은 해소되었다. 하지만 질문 뒤 마지막 말씀에서 나이에 대한 책임감이 다가왔다. 무언가 성취해 놓아야 했고 기준과 비교는 나를 억눌렀다. 친구와 대화하며 해결책과 정답보다는 잠깐의 공감과 위로를 얻는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간과 시절들을 지내온 가장 가까운 사람을 다시 돌아본다. 분명히 결혼과 직업도 처음이며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해보셨을 것이다. 가끔은 알지 못하거나 미숙해서 혼이나 거나 때론 포기하고 싶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이겨내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곁에 계신다.

어찌 보면 부모님들은 이루고 싶은 걸 포기하고 우리와 같은 유년 시절도 잃어버린 채 그 자리에 계신 것이다. 그리고 평생이 넘도록 흰 허리에 다시 한번 힘을 넣으며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려고 애쓰신다. 그러나 평생 함께할 것 같지만 함께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 그냥 '사랑한다'고 표현해 보자. 추천곡은 가족사진이다.

# 회견 복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 아들과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일본을 거쳐 들어온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짧은 방문이지만 메시지를 보는 순간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공부한다고 가더니 미국에 눌러 앉아서 생이별을 한 아들이 한국에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 뉴욕 빌딩에 부딪힌 비행기 때문에 영주권이 늦어져서 칠순 잔치에 참석을 못한 아들이 나온다고 할 때 내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기분 좋으면 양쪽 이를 드러내 "그랬구나 ~" 하고 웃으셨을 것 같은데 또 다른 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도 웃으셨을까? 운이 좋으면 일년에 두 번 정도 방문한 아들은 한국에 몸만 왔을 뿐 늘 바쁘다며 함께 지내지 못 하던 아들의 등을 바라보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 늦게 철든 아들은 그 시간을 지금도 아파합니다.

리치몬드에서 사는 아들이 한번은 "아빠, 우리 스시 먹으러 일본에 가자" 며 전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지로 오노' 라는 스시 장인이 죽기 전에 그의 가게로 가서 한 번 먹자는 제안입니다. 처음에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남들은 일본에 선교를 위해 가는데 스시 먹으러?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런 마음을 전하면서 그 계획은 취소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때 함께 갔어야 했습니다. 내 하나님은 복음을 들고 일본 가는 선교사도 좋아하지만 아들 손에 이끌려 지로 오노의 스시 먹으러 가는 저도 충분히 사랑해 줄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오면 어떻게 해서도 그동안 봐둔 맛집에 데리고 갈 겁니다. 지로 오노의 스시만큼은 아니어도 입에서 살살 녹는 연어 뱃살에 따뜻한 밥이 담긴 스시를 맛보여 주고 싶습니다. 생생한 바지락 국물에 자기 몸을 드러낸 칼국수와 수제비가 담긴 칼제비도 설명하며 먹게 할 겁니다. 이른 저녁을 먹고 롯데월드타워에서 오후의 햇살이 지고 어둠이 점점 밀려 내리는 서울의 전경을 보여 줄 겁니다. 먹으면 속이 불편한 커피도 그날은 함께 마시고 아버지가 남은 삶을 살기로 한 서울 야경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모두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귀한 아들이 저를 돌봐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지만 아직은 아버지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사주는 건 뭐든 다 받을 겁니다. 내 어머니가 하신 "괜찮다 ~ 다 있다" 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제 옆자리에 태우고 사준다고 하면 어디든 함께 갈 것입니다.

##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113

### 가장 넓은 길 양광모

살다보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라  
눈이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요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있다



© marciomarim, 출처 Unsplash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했다'인지, '한다'인지, '할 것이다'인지. 서술어에 쓰인 동사까지 들어봐야 화자의 말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 있다. 삶도 마찬가지다. 완벽하게 세운 계획도 최후까지 고민하며 내린 결정도 막바지에 전혀 새로운 결론이 날 때가 있다. 그러기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 끝이라고 생각할 때, 시인은 말한다. "눈이 덮였다고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다. 어둠에 묻혔다고 길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묵묵히 빗자루를 들고 눈을 치우다 보면 새벽과 함께 길이 나타날 것이다."

새벽과 함께 나타난 길이 우리 마음에 길을 내고 있다. 우리 삶의 여정을 수천 번 수만 번 흔들어댄다 해도 그저 묵묵히 눈을 치우다보면 중국에는 '고단하였으나 가장 아름다운 꽃길'로 갈무리될 것이다.

주어진 운명과 함께 춤을 Dancing  
최정권 2023 11

거리의 낙서를 예술의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장 미셸 바스키아 (Jean-Michel Basquiat 1960-1988) 의 그림을 본 건 뉴욕의 현대 미술관이었습니다.

흑인의 거리로 알려진 필라델피아 다운 타운 벽면에 그려진 수 없는 낙서를 바라보며 지낸 제 눈에 바스키아의 그림은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림 속의 글자와 기호, 검은색과 사다리는 그가 누군가를 알고 싶어 하는 정체성의 표현이었습니다. 주어진 운명과 가고 싶은 열망 사이에 설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차라리 누워 버린 그의 그림을 봤습니다. 머릿속 안에 강렬히 남아 있던 그 그림의 잔상이 마음을 거치고 손끝을 따라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양실과 여학생 휴게실 사이 벽면 그림은 말하는 분의 무거

운 짐이 듣는 자의 귀를 뚫고 운명처럼 다가왔을 때 그려졌습니다. 바다 한 가운데 세찬 비바람을 맞아야만 되는 운명으로 태어난 섬. 그 위로 두꺼운 색을 칠하고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나이프로 잘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위에 사람들이 서서 외딴섬의 운명을 지켜보고 섬도 자신을 지켜보는 그들을 지그시 보면서 주어진 운명을 나이프의 모서리로 천천히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운명을 거부하지 않고 그 운명과 함께 춤을 추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늘의 구름도, 바다의 물결도, 해안의 사람들도 다같이 함께 운명의 곡조에 맞춰서 몸을 흔들기로 했습니다. 다만 섬은 그 춤을 멀리서 흔들림 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섬이기 때문일 겁니다.

대학어린이집



▲ "영보의 마블"에 참석한 후 교수들과 동문들이 함께하고 있다.

동문과 함께하는 '영보인의 밤'

지난 21 일 한국성서대학교 로고스홀에서 "영보의 마블" 주제로 '영보인의 밤' 행사가 진행되었다. 영유아보육학과 교수님들과 학부생, 동문이 한자리에 모였고 강우정 총장의 축하 인사로 시작되었다.

영유아보육학과 학회 사회로 다양한 게임과 장기자랑이 진행되었다. 또한 동문과 예비 신입생 인터뷰를 통해 졸업생, 학부생, 예비 신입생이 모두 소통하였고 대학어린이집의 동문 12 명이 교수님과 선후배를 만나는 벽찬 자리도 만들어졌다. 학부생은 물론 동문들도 즐겁게 참여하며 서로서로 화합과 동지애를 다진 뜻깊은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대학어린이집은 다양한 동문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영유아보육학과 발전과 보육인 양성에 힘쓰기로 했다. [밀알반 김예빈 교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 강사가 사별의 고통을 겪은 참가자들에게 삶의 의미를 안내하고 있다.

사별 대상 심리 · 정서 지원, '아름다운 여정'

지난 8월부터 연말까지 사별(死別)로 큰 어려움 겪는 주민에게 심리·정서 프로그램 '아름다운 여정'을 지원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이별의 슬픔과 상실로 우울감에 처한 주민을 위로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아름다운 여정'은 총 8 회로 진행된다. 애도 과정의 이해, 감정 관리, 위로 주고 받기, 삶의 의미 찾기, 스트레스 관리, 역할 재정립, 관계 증진과 희망 찾기 주제로 진행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서로를 돕도록 지원하며 같은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나눌 자조 모임의 형성까지 도와준다.

매년 상, 하반기에 참여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사별의 큰 아픔을 혼자 감당하기보다 이 프로그램에서 위로하며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

[복지서비스팀 / 문유나 팀장]

꿈빛어린이집



▲ 유아들이 부모와 함께 김장담그기를 진행하고 있다.

김치담그기

지난 22 일 텃밭 작물로 가꾼 배추와 무를 이용해 김치 담그기를 진행하였다. 영아는 사과 깎두기, 유아는 배추 겉절이를 만들었고 김장용 재료(사과, 무, 김치, 젓갈, 고춧가루 등)를 직접 탐색하고 담그는 과정도 알아보았다. 김치를 담그기 전, "매울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먹어봤어요", "안 먹을래요"라고 말하는 유아가 있었다. 그러나 김치를 직접 버무려 맛 본 후에는 우리가 키운 배추라며 맛있다고 좋아했다.

각 가정에서 가지고 온 통에 담으며 김치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먹어볼기 대감으로 환한 미소가 퍼져 나갔다. 이번 행사는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 부모님이 참여해 풍성함을 더해줬다. 부모들은 배추와 무가 자라서 김장까지 담았으며 아이에게 귀한 경험이 되었다고 감사를 나타냈다.

[민들레반 강옥경 교사]

성서대학교회



▲ 하나님이 내려주신 풍성한 은혜.

추수감사주일

11 월 19 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영광을 올려 드렸다. 한해를 은혜와 축복으로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온 성도가 정성껏 준비하였고, 교회학교 청소년부와 청년부까지 3부 예배에 참석하여 연합예배로 드렸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는 특별히 성찬식을 진행해 감사의 의미가 배가되었다. 우리의 죄를 사랑으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 안에서 연합하는 은혜가 추수감사주일과 더해지며 큰 감동을 일으켰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고난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과 사랑에 힘입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다시 힘과 용기를 얻으며 강성한 주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을 말씀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진정을 다한 영광을 올려드린다. [오종철 목사]

상계백병원어린이집



▲유아가 사랑나눔 바자회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랑나눔 바자회

지난 16~17 일 사랑나눔 바자회를 진행하였다. 각 가정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생활용품과 의류, 신발, 놀잇감 등을 보내 주었고 바자회 당일 학부모들이 자신의 가정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생필품 외에도 먹거리를 만들어 판매하는 '열린 어린이집' 으로 행사 분위기가 한층 풍성했다. 한 학부모는 네일아트 부스에서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며 놀이하는 기회가 좋았다는 소감도 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교사와 학부모, 아이들이 쓰던 물건들도 버리지 않고 다시 재활용하는 '환경 보존을 위한 협력' 을 경험할 수 있었다.

[윤서희 교사]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



▲학부모와 유아가 초등전이에 필요한 심리운동을 체험하고 있다.

가족체험프로그램

지난 18 일과 25 일 광운대학교에서 '초등전이를 돕는 심리운동'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행사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특수교육대상자 유아와 가족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1 교시에는 가족과 함께 움직임 체험, 2 교시는 친구들과 움직임 놀이를 운영했다.

수업 시작과 종료 종소리를 듣고 참여하기, 쉬는 시간 화장실 다녀오기, 필요 준비물 챙겨보기로 우리 자녀들의 초등전이를 돕고 격려하는 시간이 됐다. 동급생 친구들과 초등학교 운영에 참여, 적응력과 사회성 등을 높였고 나아가 상급반 진학의 두려움까지 희석해 주었다.

체험에 참여한 부모들은 토요일 운영이 좋았고 이를 정규 프로그램화하면 더 유익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화 특수교사]

상계 5 동어린이집



▲ 학부모들이 불암산 산림치유센터에서 힐링과 삶의 여유를 가졌다.

행복숲 프로그램

지난 6 일 장애통합 부모들과 불암산 산림치유 센터에서 '행복숲' 주제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양육에 지친 학부모에게 힘을 전하고 토닥여 줄 편안한 공간과 시간이 있는 공동체의 삶을 지향해 가는 목적을 담고 있다.

비가 내려서 우비와 모자를 쓰고 숲속을 산책하였다. 자연의 숨결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기, 어려움 있을 때 잠시 마음 내려놓기와 시인이 되어 시를 지어 보기도 하였다. 자신을 돌아보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됐다. 마지막에는 서로의 몸을 풀어주고 격려의 말로 토닥여 주며 용기와 위로도 전했다.

부모들은 비오는 자연 안에서 움츠러든 심신이 따뜻하게 퍼지는 시간이었다고 평했다. 마지막 회기에는 졸업생 부모들과 Q&A 시간을 갖고, 소망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초록풀잎반 강혜진 교사]

늘사랑어린이집



▲ 교사들이 아로마테라피 힐링 교육을 받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있다.

아로마 테라피 힐링 교육

지난 21 일, 일과 후 교사들을 위한 아로마 테라피 힐링 교육을 진행하였다. 먼저 아로마 테라피의 효능을 듣고 흥미와 함께 더 집중할 수 있었다. 여러 냄새를 시향 해 보고 자신의 취향에 적합한 냄새와 반대로 어울리지 않는 향기까지 확인해 보았다. 교사들이 직접 향을 선택하고 자신에게 맞는 오일을 만들어 보는 과정도 매우 좋았다. 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와 프로그램을 통해 웃는 얼굴로 즐겁게 참여하면서 서로를 향한 훈훈한 광경이 내내 이어졌다.

교육을 마치고 보육교사의 직업이 아이를 사랑하며 자라가는 모습에 보람을 갖지만, 정작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적었다는 점은 늘 안타까웠다. 비록 아로마 테라피 힐링이 짧아 아쉬웠지만 이름처럼 향기로 나를 알고 돌아보는 값진 경험을 일깨워준 날이었다. [늘사랑반 김세희 교사]

www.bible.ac.kr

# 「성서대학돕기운동」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 2023년 10월 21일부터 2023년 11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수처**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1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무 명	7,623만원(운영)	김승례(한국성서대학원)	500만원(운영)
최수일	5,000만원(운영)	(주)이레E&C이레디자인(신창현 대표)	110만원(운영)
장승복	5,000만원(운영)	동서환경(주)(김태봉 대표)	100만원(운영)
경성교회(박종길)	1,500만원(운영)	서부중앙교회(노재석 목사)	100만원(운영, 장학)
무 명	1,200만원(운영)	이레장학(민용기 원장)	100만원(장학)
박선희	1,000만원(운영)	구재서(한국성서대학원)	100만원(운영)

## 약정자 명단

<b>동문 및 가족</b>	5구좌 김진경	3구좌 박보병 최정규	15구좌 이한영
0.8구좌 박은정	<b>재학생 및 가족</b>	5구좌 권오길	<b>서문교회</b>
1구좌 권슬기 김명화 김재현 문성령	0.4구좌 나영호	8.3구좌 구재서	1구좌 강선애
송향숙 이예지 이용철 이해성	1구좌 김민서 김선경 이연신 전성운	10구좌 김승례 박은정	<b>일 반</b>
이현우 이현우 홍성대	1구좌 박은혜 김미옥 김성미 박은영	41.6구좌 김성례	1구좌 김진수
1.2구좌 이해성	오명기 이선경 이상찬 이해봉	<b>교직원 및 가족</b>	<b>단체 및 기관</b>
2구좌 김미나 김중재	장은정 정인숙 지은영 최경애	5구좌 최선희	7.5구좌 서부중앙교회
3구좌 권오규	최장현	10구좌 안현미	8.3구좌 동서환경(주)
			41.6구좌 경성교회

## 기부자 명단

<b>동문 및 가족</b>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양혜영 엄미자 엄보영 오세천 오찬양 오재엽 용아름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소담 유영진 유주연 유주홍 윤영원 윤정숙 윤지준 윤현중 이광삼 이광석 이근중 이두현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복희 이상용 이상준 이상필 이석호 이상재 이영광 이영식 아용원 이용철 이윤아 이윤주 이은광 이정숙 이정익 이정훈 이진경 이진리 이채너 이철승 이해준 이해별 이현우 이현섭 이현지 이해진 이화연 이환기 인지혜 입남업 입상일 임은성 임은진 임찬용 장윤국 장익봉 장익신 장희남 전영수 전명자 전미영 전보람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하나 정다연 정다운 정선도 정소윤 정영교 정윤미 정은희 정안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조소연 조수빈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차현 조혜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선경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윤석 최인호 최충운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정 한태우 허영숙 홍금주 홍선호 홍성태 홍정심 황승호 황예린 황형록 강해든이 설에스터 신에스터 열매맺는교회 황보혜영	김동원 김미나 김미향 김민지 김복녀 김성훈 김연정 김연주 김영래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재원 김정복 김중재 김지원 노민지 류충열 박상수 박재송 박주영 박혜숙 성용재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신정섭 신화영 심규리 안선례 유미영 유의숙 윤광길 윤서희 이기주 이마리 이상복 이선영 이영림 이영애 이우진 이유미 이은애 이익선 이재은 이정목 이종근 이종임 이종희 이한별 이현우 임수경 임수정 임은희 임주영 임준택 장은경 장재경 장재원 전영희 정복자 정성민 정영용 정옥순 조은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현지 최효정 추하은 탁명화 하지혜 허춘신 홍진옥 황인숙 황진솔 등대학교	3만원 고은영 공복순 구예은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윤정 김재임 민승철 민찬양 박기혁 반세호 조혜진 주민자 주성현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채종원 이남희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영섭 이윤성 이주연 이현지 임연식 장영훈 전지혜 정슬기 조은경 최선경 최소린 최양서 탁현정 태지선 황영숙 홍은교회	4만원 박주은 배정환 송인성 신은진 5만원 강경옥 김기숙 김동환 김준오 박진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김인숙 서명주 송복순 신상춘 양연주 유양숙 이기훈 이병철	이영삼 이유나 이자은 최경환 최승희 가학교회 벨레스서동우회 6만원 정동주 10만원 김동관 김선옥 김장교 김중숙 김진만 박은정 서광진 서수경 신차신 이부호 11만원 유선미 12만원 성낙표 15만원 박빛나 16만원 이해성 100만원 이레장학
5천원 김삿별 김시내	1만원 강나경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슬 강옥경 강재현 강정민 강정희 강주옥 강춘자 고대운 고성호 광미화 구분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길 권순실 권순용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지연 권희조 금동욱 금필규 김가영 김도훈 김두환 김명화 김명희 김무엘 김민정 김민음 김병렬 김선근 김선태 김세현 김소영 김수연 김수정 김소녀 김순덕 김순화 김승훈 김승희 김예진 김요셉 김유미 김유현 김은경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은혜 김원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희 김지선 김진숙 김진영 김준덕 김태용 김하은 김하나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남병수 남성휘 노명민 노하나 노 만 류요한 류하나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수란 문정혜 문홍철 박경수 박경욱 박명우 박수진 박순인 박윤복 박재신 박중주 박지영 박창대 박창민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호순 백명희 백연옥 백연주 백해송 백향록 변지윤 서민경 서성식 서유미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진규 송순덕 송향숙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영선 신영옥 신은혜 신홍수 신지은 신혜영 심두한 심인자	1만원 김민서 김선경 김양순 김은주 김혜미 선유정 양은성 양주향 이동기 이해정 임동화 장연정 전계화 지중배 2만원 김선옥 김애선 김창환 박명규 박은영 신한우 연성희 오명기 이미영 이은수 이은영 이진아 이혜분 장영순 장은정 전옥순 조복임 조윌이 천광호 최경애 함은애 황미숙 3만원 배정숙 송의택 안태유 4만원 김형태 5만원 권오길 김명자 김진주 김성안 박지홍 안종현 이재현 정미영	30만원 박지홍 100만원 구재서 500만원 김승례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고난홍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b>재학생 및 가족</b>		
			1만원 김민서 김선경 김양순 김은주 김혜미 선유정 양은성 양주향 이동기 이해정 임동화 장연정 전계화 지중배 2만원 김선옥 김애선 김창환 박명규 박은영 신한우 연성희 오명기 이미영 이은수 이은영 이진아 이혜분 장영순 장은정 전옥순 조복임 조윌이 천광호 최경애 함은애 황미숙 3만원 배정숙 송의택 안태유 4만원 김형태 5만원 권오길 김명자 김진주 김성안 박지홍 안종현 이재현 정미영		
			<b>교직원 및 가족</b>		
			1만원 강선애 광하나 권관희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세미 김지진 김애란 김중현 김지성 김지환 김지효 김춘하 김형중 류은미		

기부자 명단		기부금		기부자 명단		기부금																										
박남일 박덕자 박모서 박연지 박주양 반우형 서광철 양승원 유성준 윤명식 이문자 이은영 이정은 임수아 장경순 전광선 전귀선 정현아 지수빈 최미영 허윤민 오시디고조 하늘사랑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구자람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봉재 김세원 김장호 문지예 민경은 박은주 박태용 배민정 안 호 오철송 유성현 장길정 장지순 전영호 정순애 정은상 조철남 최난영 한상만 한정숙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배 윤.김현진 1만원 서효정	3만원 권오섭 김창현 방진희 신재윤 양희정 여진희 유수연 윤혜진 정지용 추연진	3천원 박용숙 9천원 김신덕 이 천 이상록 이홍섭 정희선 황성모	5만원 구광면 김병수 김성호 김원빈 김현동 신지수 안단아 유미나 이상일 장정순	1만원 김경혜 오경원 이기은 이대영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고경숙 권정화 김다혜 김덕현 김동석 김문정 김배열 김성은A 김성철 김애숙 김주혜 김지윤 김진철 김현미 김희현 박상희A 박영숙 박영신 박은선 박이숙 박인숙 박주형 서영우 석경순 송형기 안영숙 오종철 윤재필 이길우 이봉호 이소정 이영진 이영희 이정숙C 이영자 이종욱 장진희 장홍림 조영희 조정선 조현진 최영태 최용석 하은희 한성실	6만원 권순범 7만원 임환석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박규상 김도경 김성경 김소희 김승호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성현 배진형 신금주 안창선 오윤선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민규 이상아 이소정 이슬기 장성희 장인순 조현진 조혜경 최사랑 최영태 최육열 최은희 한영수 현우석 홍소윤 김정원(신) 김정원(영)	2만원 변경선 2만7천원 강유진 김은미 3만6천원 강규성 고미숙 김인영 김인자 김춘환 김향순 김희자 박 선 박선하 박성환 박은우 박태수 안봉숙 양태환 오경모 용정자 유정선 유중선 유중엽 이경선 이판영 이승림 정나영 조병하 허진순 황시은	11만원 최지은 13만원 김중완 한진호 15만원 강규성 권경만 김은호 김희수 안정선 이한영 20만원 김덕현 김승욱 김창원 박 선 박태수 정해덕 정희진 조윤경	4만5천원 김동선 김순옥 김웅기 노봉환 유형창 5만4천원 김문용 김일선 김현석 이숙영 최선희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35만원 최선희 300달러 강일석 1200만원 무 명 7623만원 무 명	7만2천원 김민자 이윤봉 황서린 9만원 강성훈 김홍희 김원태 박세건 이은실 이정임 최강희 최대만 최정권 최지웅 한진호	부설기관 1만원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김효진 임재택 호환나 2만원 진양희 홍옥주 3만원 권효진 문유나 박천순 안미희 유정현 장나혜 장윤정 4만원 박미선 5만원 김선화 박연희 신영자 이인경 이지연 차도영 10만원 권정아 장수진 조지선 15만원 김화영 지주나 20만원 김신덕 35만원 오동준 40만원 차 건	10만원 임희철 13만5천원 박은오 18만원 권태완 임성일 임철순 김미진 27만원 허에스더	2만원 금촌성서교회 3만원 태광성서교회 푸른동산교회 5만원 동두천성서교회 일동성서교회 10만원 다빛교회 삼일성서교회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홍성호	1만원 김정희 2만원 박우람 한지화 3만원 임윤창 어린양교회 7만원 이정선	1만원 손미희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3만원 주향교회	1만원 광 해 김세현 김정희 이승학 이태학 최영란 2만원 신영옥 우용식 이수병 강영애.신한성 이준구.안춘자 3만원 권순호 김덕규 오근수 5만원 김중구 이경식 한금례 /중앙성서교회 원로·은퇴장 로회 10만원 김옥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2만원 황인돈.김순자 15만원 이혜선 20만원 김윤규 48만원 중앙성서교회 구제위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성경아	1만원 안중민	1만원 유금례 윤은정	1만원 김희경	1만원 진경숙 진은숙 진효숙	501원 무 명 1만원 구필레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대석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김희권 노은경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서민석 송수용 오미라 오미선 오지혜 오현숙 유해연 유화실 윤수현 윤준영 이관현 이민우 이사람 이성영 이성태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윤희 이현수 임숙자 정명웅 조동빈	조목장 조연상 조여원 조은혜 진윤송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한춘경 황영수 위셀러류 2만원 강명옥 길옥석 김동석 김성래 김윤숙 서병준 서성진 이일신 정주아 정형화 조해령 최국열 최지연 허정만 홍춘호 행복한교회 3만원 김중환 장문석 3만5천원 박은영 5만원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7만원 평화의교회 10만원 서미혜 정동환 20만원 류동원 박경혜 30만원 박순정 1000만원 박선희 5000만원 장승복 최수일	단체 및 기관 1만원 김포예수사랑교회 늘푸른교회 막기즈푸드/목양교회 무진인태내셔널 주남순교회/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 (주)에이스와식산업 도새기짱/동신자원 바로그복원교회/열방교회 3만원 꿈꾸는교회/우리교회 의정부좋은나무교회 주식회사 이수전기 한길교회(김오권) 4만원 플랜팅시즈 5만원 다드림교회 미사목인교회 분도시락 중계점 사랑샘교회/상일교회 예일애드벌/천성교회 /행진교회 10만원 (주)바다나라/가성교회 /구리성광교회/구리중앙교회 /도봉성산교회/두암산업(주) /만나교회/상록교회 /성북중앙교회/소망교회 /철원제일교회/청평교회 /평안교회(신봉수) 20만원 (주)소원기건 30만원 한민제일교회 50만원 사회복지대학원 동문회 100만원 동서환경(주)/서부중앙교회 110만원 (주)이레E&C이레디자인 1500만원 경성교회	소개(20231021~20231120) 253,840,323 누계(20220301~20231120) 758,431,965

한국성서대학교 11월 『발전후원금』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126,350,000원)			
최수일 · 장순복 (일반)	50,000,000	/	경성교회 (일반) 5,000,000 / 박선희 (교직원) 10,000,000
서부중앙교회 (동문)	900,000	/	이해성 (동문) 150,000 / 김덕현 (교직원) 100,000
오윤선 (교직원)	100,000	/	전명수 (동문) 100,000
약정 후원자 (합계 2 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240,000원)			
1구좌	이해성 (재학생)	/	황미숙 (재학생)
일시납 누계 (2023. 3.1~11.22일까지) 207,724,700원 / 약정자 누계 (2023. 3.1~11.22) 169구좌(연간 납입예정액 20,280,000원)			

